

‘얼음 위의 ‘F1’ 봅슬레이

남녀 2인승·남자 4인승·여자 모노봅 경기
동계올림픽 전통의 강호는 독일·스위스

밀라노 동계올림픽 종목소개

봅슬레이는 스키레톤, 루지와 함께 썰매 3개 종목 중 하나다. 핸들과 브레이크가 있는 원통형 썰매를 타고 최고 시속 140km 안팎으로 경사면의 얼음 트랙을 도는 경기로 얼음 위의 포물러(F1)로 불린다. 봅슬레이 2인승은 썰매를 조종하는 파일럿과 멈출 수 있게 제동을 거는 브레이크맨으로 구성한다. 4인승에서는 파일럿, 브레이크맨과 함께 썰매를 밀고 나가는 푸시맨이 출전한다. 모노봅의 경우 여자 선수 혼자 썰매를 밀고 조종하고 제동까지 한다. 특히 얼음 트랙의 라인을 파악해 조종을 책임지는 파일럿은 트랙의 벽에 부딪히는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도의 집중력과 조종 능력이 요구된다. 봅슬레이는 썰매와 선수들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경기 규정에 따른 무게 제한이 있다. 썰매와 선수의 무게 합은 남자 2인승은 390kg, 남자 4인승은 630kg, 여자 2인승은 350kg, 여자 모노봅은 247kg 이하로 제한한다. 0.01초 단위로도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썰매는 가벼우면서 공기 저항을 적게 받도록 진화하고 있다. 썰매 제작에 첨단 기술까지 동원해 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봅슬레이는 1924년 제1회 사모니 동계 올림픽에서 남자 4인승 종목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첫선을 보였다. 이후 1932년레이크 플라시드 대회에서 남자 2인승이 도입됐고,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대회에서 여자 2인승이 포함됐다. 2022년 베이징 대회부터는 모노봅이 추가되면서 4개 종목으로 늘었다. 내달 개막하는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남페초 동계올림픽에서도 총 4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다. 역대 동계올림픽에서는 독일이 금메달 16개(은메달 9개·동메달 7개)로 가장 많이 시상대 꼭대기에 섰다. 스위스가 금메달 10개(은메달 10개·동메달 11개), 미국(은메달 11개·동메달 9개)이 금메달 8개로 뒤를 잇는다. 썰매 종목 불모지였던 한국 봅슬레이는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원윤종, 서영우, 김동현, 전정린 조가 남자 4인승 경기에서 은메달을 따며 새 역사를 썼다. 유럽과 북미가 아닌 나라가 올림픽 봅슬레이에서 입상한 건 한국이 최초였다. 직전 베이징 대회에서 메달 수확에 실패한 한국은 이번 밀라노·코르티나남페초 대회에서 다시 입상을 노린다. 파일럿 김진수를 중심으로 꾸려진 남자 2인승(김형근, 4인승(김형근, 김선욱, 이건우) 대표팀이 출격 체비를 마쳤다.



김진수 팀(김진수·김선욱·김형근·이건우)가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서 열린 2025-26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BSF) 월드컵 2차 봅슬레이 남자 4인승 경기를 펼치고 있다. 1차대회에서 동메달을 땀 김진수 팀은 1,2차시기합계 1분44초29초로 7위를 기록했다. /뉴시스

동·호지정 계약 중

3,214세대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

X1 | FORENA

방문예약시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증정!

※ 상기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PREMIUM6

NO.1 BRAND	총 3,214세대 대단지의 품격	원스톱 도보 학세권	일상을 높은 특화설계	다채로운 커뮤니티	쾌적한 에코라이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자이와 포레나의 합작	복구를 대표할 대규모 브랜드 라운	단지내 어린이집 및 단지 앞 경양초, 운암중 등 안심 학세권	채광과 조망을 고려한 남향 위주 단지 배치, 조망형 유리난간 적용, 세대 전용 창고 등	교보문고 북 큐레이션, 오픈 카페스테이션 진 타석 GDR골프연습장 및 스크린 골프 등	약5.5만㎡ 규모의 단지 조경과 운암산, 중의곡원 등 힐링 자연환경

발코니 무상

중도금 무이자

일부 품목 무상

+

파격적 혜택

총 3,214세대 중 일반분양 1,192세대 [전용 59㎡ / 75㎡ / 84㎡]

062) 607-8338

세영 윤암 3단지 재건축청정사업조합 | 세영 GS건설 | (주)한화/건설 | HDC 현대산업개발

깜짝 메달 도전하는 봅슬레이 ‘김진수 팀’

밀라노 동계올림픽 스타

파일럿 김진수(강원도청)가 이끄는 봅슬레이 대표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남페초 동계올림픽에서 깜짝 메달을 노린다. 썰매 종목 불모지였던 한국 봅슬레이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원윤종, 서영우, 김동현, 전정린 조가 4인승 경기에서 은메달을 따며 새 역사를 썼다. 올림픽 봅슬레이 종목에서 유럽과 북미가 아닌 나라가 메달을 딴 건 한국이 최초였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다시 메달권에서 떨어진 한국 봅슬레이는 내달 개막하는 밀라노·코르티나남페초에서 또 한 번 입상에 도전한다. 봅슬레이 대표팀은 파일럿 김진수를 중심으로 한 남자 2인승(김형근, 4인승(김형근, 김선욱, 이건우)가 달릴 준비를 마쳤다. 4년 전 브레이크맨으로 베이징 대회에서 은퇴한 원윤종과 호흡을 맞췄던

8년 만에 봅슬레이 동계 올림픽 입상 도전

4인승 김진수 팀, 올림픽 트랙서 열린 월드컵서 동메달

김진수, 4년 전 브레이크맨에서 파일럿으로 변신

김진수는 파일럿으로 성공적으로 전향했다. 김진수의 주행 기량은 날로 발전했고, 푸시맨, 브레이크맨과의 호흡도 좋다. 다년간 브레이크맨으로 여러 트랙을 누빈 경험이 바탕이 됐다. 봅슬레이 대표팀은 지난 시즌 월드컵에서 국제대회 경쟁력을 확인했다. 남자 4인승은 지난해 11월 올림픽 트랙에서 열린 시즌 첫 월드컵에서 3위에 오르며 밀라노·코르티나남페초 동계올림픽 메달 전망을 밝혔다. 당시 파일럿 김진수와 푸시맨 김형근(강원도청), 김선욱, 브레이크맨 이건우(이상 강원연맹)로 꾸려진 김진수 팀은 1분50초34의 기록을 냈다. 우승한 요하네스 크로너 팀보다 0.61초, 프란체스코 프리드리히 팀(이상 독일)보다는 0.39초 느렸다.

한국팀이 월드컵 남자 4인승 종목에서 입상한 건 최초였다. 김진수는 김형근과 팀으로 나선 남자 2인승에서도 월드컵 1차 대회에서 4위에 오르며 자신감을 얻었다. 특히나 올림픽 트랙에서 낸 성과로 그 의미가 더 컸다. 봅슬레이 2인승 팀은 지난 18일 독일 알텐베르크에서 열린 월드컵 마지막 7차 대회에서 4위에선 4위에 올랐다. 동메달을 딴 독일의 프리드리히 팀과는 0.47초 차이였다. 2인승 팀은 이번 시즌 7차례 월드컵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지만, 여러 번 입상권에 근접하며 올림픽 메달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올림픽 트랙에서 치른 1차 대회를 포함해 총 4차례 4위에 올랐다. /뉴시스